정보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 14번 사단조 작품 135

개요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Dmitri Shostakovich, 1906–1975)
작품명: 교향곡 제 14번 사단조 (Symphony No. 14 in G minor), 작품 135
작곡: 1969년
장르: 소프라노 ·베이스 ·현악 ·타악을 위한 성악 교향곡
구성: 네 시인의 텍스트를 11개 연속 부문으로 설정
독창: 소프라노, 베이스
연주 시간: 출판사 자료는 약 50분, 자료와 녹음에 따라 약 42–56분
헌정: 벤저민 브리튼 (Benjamin Britten)

Boosey & Hawkes: https://www.boosey.com/cr/music/Dmitri-Shostakovich-Symphony-No-14-in-G-

minor/5785

Wise Music Classical: https://www.wisemusicclassical.com/work/33055/Symphony-No-14--Dmitri-

Shostakovich/

교향곡 제 14번은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러시아어 번역 텍스트를 노래하고, 현악과 타악만으로 반주하는 11개 성악 부문의 연속 작품이다. 1–2번은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3–8번은 기욤 아폴리네르 , 9번은 빌헬름 퀴헬베커, 10–11번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를 사용한다. 쇼스타코비치가 여러 시를 하나의 교향곡으로
묶은 명칭을 택했다는 해설이 있으며, 확장된 연가곡이나 한 막 오페라에 가깝다는 후대의 비유도 있다. 이 작품은 대편성 교향곡이 아니라 19명의 현악 주자와 특수 타악기를 중심으로 한 실내악적 성악 교향곡이다 .

작곡과 헌정

쇼스타코비치는 1962년에 무소륵스키의 《죽음의 노래와 춤》을 관현악화한 뒤, 네 곡보다 더 긴 죽음의 연작을 구상했다는 회고를 남겼다고 여러 자료가 전한다. 1969년 1월 병원에 입원한 뒤 성악보를 2월 16일 완성했고, 총보는 3월 2일 모스크바의 아파트에서 마쳤다는 출판사 기록이 있다. 병원 체류와 집에서의

관현악화 과정을 하나의 장소에서 전곡을 쓴 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작품은 벤저민 브리튼에게 헌정되었다 . 개인 악보에 남은 헌정 표기는 1969년 12월 1일 날짜를 갖지만, 이는 작품 완성일이나 세계 초연일과 다르다. 브리튼은 1970년 올드버러에서 영국 첫 공연을 지휘했다.

초연과 공연 전승

1969년 9월 29일 레닌그라드에서 루돌프 바르샤이가 지휘한 Moscow Chamber Orchestra의 공식 초연이 열렸다. Boosey의 카탈로그는 소프라노 Galina Vishnevskaya와 베이스 Mark Reshetin을 세계 초연자로 적는다. Moscow Chamber Orchestra의 공식 해설은 첫 발표와 관련해 Vishnevskaya·Margarita Miroshnikova, Reshetin·Yevgeny Vladimirov 네 명을 함께 언급하고, 공식 초연 녹음과 Melodiya 발표에는 Miroshnikova와 Vladimirov의 목소리가 남았다고 설명한다. 이 자료들은 여러 발표와 녹음의 참여자를 묶어 제시하므로 , 네 사람이 한 무대에서 모두 노래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969년 6월 21일 모스크바 음악원 소강당의 드레스 리허설에서 작곡가가 작품을 소개했다는 편집자 주가 있다. 이는 9월 레닌그라드 공식 공연과 별도의 사전 발표다. 다음 달 6일에는 모스크바 음악원 대강당 공연이 이어졌다.

출판 정보와 텍스트 언어

Muzyka Moscow의 1971년 총보, 1980년 전집 제 8권, 2012년 Schott의 New Collected Works 제 29권 성악보가 서로 다른 편집 계보를 이룬다. 현재 판본은 러시아어 ·독일어와 각 시의 원어를 병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1969년 초연에서 원어로 노래했다는 뜻은 아니다. 초기 공연은 러시아어 번역 텍스트를 사용한 것으로 여러 자료가 설명한다.

소요 시간

Boosey와 Wise Music은 약 50분을 안내하고, The Ford는 55분을 제시한다. BIS-1173 녹음은 56분 34 초이며, 전집 제 9권의 영문 편집자 주 전사에는 약 42분이라는 수치가 보인다. 판본, 템포, 반복과 부문 사이의 연결에 따른 자료 차이가 크므로 출판사 기준으로는 약 50분, 넓은 범위로는 약 42–56분이라고 기록하는 편이 안전하다.

편성

독창은 소프라노와 베이스이고 , 현악은 제 1바이올린 5, 제 2바이올린 5, 비올라 4, 첼로 3, 5현 더블베이스 2로 적힌다. 타악기는 목블록, 캐스터네츠 , 채찍, 소프라노 ·알토 ·테너 톰톰 3대, 오케스트라 또는 관형 종, 실로폰, 비브라폰, 첼레스타를 사용한다. 팀파니, 큰북, 심벌즈, 트라이앵글은 주요 출판사 목록에 없다. 타악 주자 수는 Wikipedia가 2명, Moscow Chamber Orchestra가 3명으로 제시해 자료가 엇갈리므로 , 악기 목록과 인원
수를 같은 확실도로 쓰지 않는다. 관악기와 금관이 없는 편성이 성악의 말과 현악의 미세한 음색 변화를 전면에 둔다.

11개 부문의 배열

1–2. 로르카의 두 장면

1. De profundis — Adagio, Federico García Lorca
2. Malagueña — Allegretto, Federico García Lorca

첫 두 부문은 로르카의 시를 사용한다. 출판사 해설은 이를 스페인 내전의 학살과 죽음의 이미지로 읽지만, 이는 Gerard McBurney와 공연 프로그램이 제시한 수용상의 연결이다. Malagueña 의 춤곡 이름이 비극적 텍스트와 나란히 놓이면서 밝은 외형과 죽음의 언어가 충돌한다.

3–8. 아폴리네르의 전쟁 ·감금 ·조롱

3. Lorelei 또는 Loreley — Allegro molto, Guillaume Apollinaire
4. The Suicide 또는 Le Suicidé — Adagio, Guillaume Apollinaire
5. On Watch 또는 Les Attentives I — Allegretto, Guillaume Apollinaire
6. Madam, look! 또는 Les Attentives II — Adagio, Guillaume Apollinaire
7. in prison 또는 At the Santé Prison — Adagio, Guillaume Apollinaire
8. The Zaporozhian Cossack’s Reply to the Sultan of Constantinople — Allegro, Guillaume Apollinaire

아폴리네르의 여섯 부문은 자살, 감시, 감옥, 전쟁과 처형, 폭군을 조롱하는 코사크의 답변으로 이어진다. 영어 관용명과 프랑스어 ·러시아어 판본의 제목이 다르지만, 서로 다른 부문을 뜻하지 않는다. 시 전문의 세부 줄거리보다 소프라노와 베이스의 발화, 짧은 현악 음형과 타악의 날카로운 색채가 장면을 구분한다.

9. 퀴헬베커의 예술가

9. O Delvig, Delvig! 또는 O Del’vig — Andante, Wilhelm Küchelbecker

퀴헬베커는 데카브리스트 시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로그램 해설은 이 부문을 예술가가 권력과 역사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을 묻는 장면으로 읽는다. 이는 시인의 생애와 작품 배열을 연결한 해설자의 독법이며, 악보가 별도의 표제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10–11. 릴케의 죽음과 결론

10. The Death of the Poet 또는 Der Tod des Dichters — Largo, Rainer Maria Rilke
11. Conclusion 또는 Schlußstück — Moderato, Rainer Maria Rilke

릴케의 두 부문은 시인의 죽음과 마지막 결론을 다룬다. 출판사 해설은 앞선 전쟁과 감금의 이미지가 예술가의 죽음과 기억으로 좁혀진다고 설명한다. 작품 전체를 죽음의 연작으로 묶는 구조는 분명하지만 ,
쇼스타코비치가 종교적 위안이나 단일한 허무주의를 결론으로 정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고정할 필요는 없다. BBC Music Magazine은 초연 전 작곡가가 삶의 아름다움을 말한 발언을 소개하며, 죽음의 항의와 삶에 대한 태도가 함께 놓인다고 설명한다.

형식과 음악적 관점

11개 부문은 각기 다른 시를 사용하지만 , 출판사와 Moscow Chamber Orchestra의 해설은 소프라노 ·베이스 · 현악 ·타악의 제한된 자원으로 하나의 통일된 교향곡을 만든다고 본다. BBC는 작품이 오라토리오 구상에서
출발했다는 전승을 소개하고, Wise Music은 “한 막 오페라에 가까운 ” 극적 연가곡이라는 비유를 사용한다. 두 표현은 창작 과정과 청취 인상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관점이며, 실제 장르를 오페라나 오라토리오로 바꾸는
근거가 아니다.

쇼스타코비치가 무소륵스키의 《죽음의 노래와 춤》에 대한 응답으로 더 긴 연작을 구상했다는 관계는 작곡가 발언과 출판사 해설에서 확인된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사건이 작품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은 Moscow Chamber Orchestra의 가능성 제안으로 남아 있어, 작곡가의 확정된 의도로 쓰지 않는다. 프로그램 노트가 말하는 기독교적 구원의 거부 역시 특정 지휘자와 평론의 해석이다.

녹음과 후속 수용

BIS-1173은 56분 34초의 녹음과 부문별 해설을 제공하며, 1번 De profundis 는 5분 41초, 2번 Malagueña 는 2분 50초로 표시된다. 이 시간은 한 녹음의 트랙 길이이지 작품의 고정된 부문별 시간은 아니다. 1970년 올드버러에서 브리튼이 영국 첫 공연을 지휘한 사실은 헌정자와 작품의 초기 국제 수용을 연결한다. 이후의
녹음 ·공연은 작품을 한 막의 연극적 장면으로 읽거나 실내악적 성악 작품으로 읽는 서로 다른 전통을 보여 주며 , 어느 한 해석을 정본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주요 자료

Boosey & Hawkes, Symphony No. 14 in G minor

Boosey, New Collected Works Vol. 14

Moscow Chamber Orchestra, Shostakovich’s Symphony No. 14

Schott Music, Symphony No. 14

BIS Records, Symphony 14 booklet

The Ford, Symphony No. 14 프로그램

BBC Music Magazine, 작품 해설

Wise Music Classical, Symphony No. 14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9:44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9:44 UTC by 안준영